「성경과 신학」 제60권 (2011): 133－59.

학습 형태 이론을 반영한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 전달 방법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Delivery Method Reflecting Learning Style Theory in Christian Education

함영주 (안양대학교/기독교교육)

본 논문은 학습자의 독특한 개별 학습 형태와 영성의 한 분야인 종교적 동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개별 학습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학습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학습의 형태에 따라 영성의 형태가 달라지며 이와 함께 영적 성숙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콜브 (Kolb)의 네 가지 학습 형태와 알포트와 로스(Allport and Ross)가 제안한 내적/외적 종교 동기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문헌 연구와 실험 연구들의 결과는 이 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영성을 향상시키거나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가진 고유한 학습의 형태를 고려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은 학습 형태를 고려한 실제 성경공부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리차즈와 브레드펠트 (Richards and Bredfeldt), 그리고 르피버(LeFever)가 기독교 교육에서 제안하여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훅－북－룩－툭의 교육 방법론이다. 이를 근거로 교회 교육에서 이러한 학습 형태를 활용한 공과 교수법을 적용한다면 학습자의 영성 발달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논문 접수일: 2011. 5. 29. 수정 접수일: 2011. 8. 27. 게재 확정일: 2011. 9. 3.

주제어 : 학습 형태, 학습 양식, 영성, 종교적 동기

1. 들어가는 말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인 학습자를 성숙시키는데 있다.[1] 이는 단순히 인간 발달의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제한적 성숙이 아니라 인지적 측면, 감정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한다. 타일러(Taylor) 역시 영적 성숙이란 교사로부터 성경적 지식을 전수 받는 것 이상으로 간주 하면서 개인의 발전과 전인적 성장과 관련된 과정으로 보았다.[2] 이는 영적 성숙이란 하나님에 대한 앎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인격적인 실천의 조합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놀만 하퍼(Harper)는 기독교 교육이란 그리스도인 학습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격려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3]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배움의 과정을 매개로 인간의 전인격적 성숙을 격려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모든 학습자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한 배움의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결코 획일적이거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4] 오히려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의 성향에 따라 배우는 방법이 모두 다르며, 이는 결국 왜 개별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하고 다양한 영적 발달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각각 다른 영성의 타입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5] 따라서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학습의

---

1 J. Wilhoit, *Christian Education and the Search for Meaning*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1), 신서균 역, 『현대 기독교 교육』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59.

2 N. Taylor, "Spiritual Formation: Nurturing Spiritual Vitality," in *Introducing Christian Education* (ed.), Michael Anthon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91.

3 N. E. Harper, *Making Disciples* (Memphis: Christian Studies Center, 1981), 114-15.

4 M. D. LeFever, *Learning Styles* (Colorado Springs: NexGen, 2004), 17-22.

형태를 알면 학습자가 형성하게 될 영성의 성향을 알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전인격적인 영성형성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경험학습 이론에 근거한 학습자의 학습 형태와 영성에 대한 연관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데이빗 콜브(David Kolb)의 학습 형태 이론과 영성의 한 측면인 종교적 동기(religious motivation)의 연관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학습 형태가 영성 형태 혹은 영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조명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앞서 제시한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그리스도인의 전인격적 성숙을 위하여 교회 교육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형태 이론을 이용한 창의적 교수 방법론(creative teaching method)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학습 형태를 활용한 교수법이 실제 교회 교육에서 구체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도구임을 알려주는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2. 학습 형태(learning style)에 대한 이해

학습 형태란 학습자가 갖는 독특한 배움의 방식을 일컫는다. 이 학습 형태는 학자의 교육적 관심사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데스메디트와 벌키(Desmedt and Valcke)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습 형태의 이론가를 발표하였는데 그가 바로 데이빗 콜브(David Kolb)였다.[6] 이는 학습 형태 연구 분야에서 콜브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5 이러한 결과를 잘 설명해주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A. M. Hanson, “The Impact of Learning Styles on Volunteering for Church Activities” (Ph. D. diss., University of Nebraska, 2006); R. Moran, “Spiritual Formation as Experiential Learning: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with Spirituality Type and Spiritual Growth on Christian College” (Ph. D. diss., Regent University, 2005).

6 E. Desmedt and M. Valcke, “Mapping the Learning Styles “Jungle”: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based on Citation 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24 (2004): 451.

경험학습 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의 대가인 데이빗 콜브(Kolb)는 학습이란 "경험을 통하여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며 그 지식은 "경험을 받아들이고(grasping) 처리하는(transforming) 일련의 연속된 조합에 의해 형성 된다"라고 보았다.[7] 즉 각 개별 학습자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반응하며 경험한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콜브(Kolb)는 학습 형태를 정의하면서 학습자 개인이 정보나 경험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였다.

콜브(Kolb)의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경험(concrete experience)이나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를 거친다고 본다.[8] 카예스(Kayes)에 의하면 구체적 경험은 학습자가 세상의 사물들과 오감을 통해 직접적으로 반응하면서 성취되는 반면에 추상적 개념화는 학습자가 감각적 경험을 이성적인 분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요약하였다.[9] 한편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처럼 지식을 처리하는 경험의 과정에서도 사색적인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혹은 활동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 발산한다.[10] 사색적 관찰의 방법은 학습자가 정보를 보고 생각하면서 처리하는 과정이고, 활동적 실험은 지식 대상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된다. 야가네(Yaganeh)는 이 네 가지 학습의 양식들(learning modes)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구체적 경험(CE):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기, 또는 오감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그들의 감정에 대해 민

---

7 D. A. Kolb,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1984), 41.

8 Kolb, *Experiential Learning,* 30.

9 C. D. Kayes, "Experiential Learning and its Critics: Preserving the Role of Experience in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1 (2002): 139-40.

10 Kolb, *Experiential Learning*, 30.

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배우는 것.
2. 사색적 관찰(RO): 반추하기, 판단 전에 주의 깊게 사고하기, 사건의 다른 측면을 바라보기, 사물의 의미를 찾아내기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는 것.
3. 추상적 개념화(AC): 생각하기,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조직적으로 계획하기, 현상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갖고 행동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는 것.
4. 활동적 실험(AE): 행동하기, 위험을 감수하기, 행동을 통해 사람이나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는 것.[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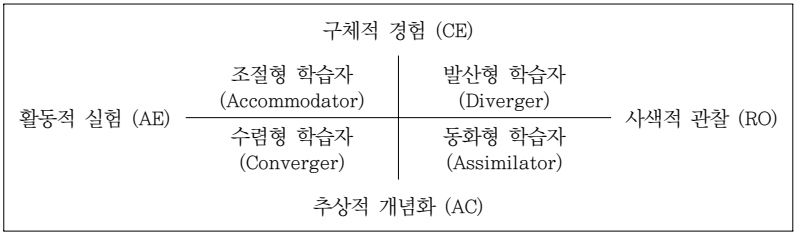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학습자는 위의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콜브(Kolb)는 이 네 가지 학습 경험의 양식들(learning modes)을 조합하여 네 가지 학습의 형태(learning styles)를 정의하였다.

1. 수렴형 학습자(convergent learning style)는 추상적 개념화와 활동적 실험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큰 장점은 문제해결 능력, 의사 결정, 그리고 실제적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잘 낸다는 것이다.
2. 발산형 학습자(divergent learning style)는 수렴형 학습자와 반대로 구체적 경험과 사색적 관찰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부류의 학습자는 창조적 능력이 뛰어나고 의미나 가치에 대한 인식력이 탁월하다.
3. 동화형 학습자(assimilator learning style)는 추상적 개념화와 사색적 관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귀납적 사고 능력이 탁월하고 이론을 세우는 데 능력이 있다.
4. 조절형 학습자(accommodator learning style)는 동화형 학습자가 갖는 학습의 강점과 반대되는 성향으로서 구체적 경험과 활동적 실험을 그 특징으로 갖고 있다. 이 부류의 강점은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새로운 경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12]

---

11 B. Yaganeh, “Mindful Experiential Learning” (Ph. D. diss.,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2006), 35.

12 Kolb, *Experiential Learning*, 77-79.



콜브 (Kolb)의 학습 형태와 학습 양식 다이어그램

콜브(Kolb, 1984)에 따르면 학습이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연속된 경험이다.[13] 다시 말하면 학습은 학습자와 그가 처한 환경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 교감 속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학습은 다양한 경험을 통합하는 순환적 과정이며, 학습자의 학습의 강점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네 가지 학습의 양식들(learning modes) 중에 하나에서 학습이 시작된다고 본다.[14] 이러한 경험의 사이클을 통해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 이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 갖고 있는 학습의 강점이 드러나게 되며 그것이 곧 그 학습자의 학습 형태가 된다.

캐시디(Cassidy)에 따르면 콜브의 학습 형태와 같이 정보나 지식을 처리하는 과정을 묘사한 학습 형태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비교적 잘 바뀌지 않으며 안정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분석한다.[15] 물론 MBTI와 같이 성격유형을 측정하는 학습 형태 도구처럼 학습자의 학습 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방법이나 외부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콜브(Kolb)의 구분에 따른 학습 형태에서는 학습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잘 바뀌지 않는 네 가지 학

---

13 Kolb, *Experiential Learning*, 41.

14 D. A. Kolb and R. E. Fry, "Toward an Applied Theory of Experiential Learning," in *Theories of Group Process* (ed.), C. Cooper (London: John Wiley, 1975), 33-58.

15 S. Cassidy, "Learning Styles: An Overview of Theories, Models, and Measures," *Educational Psychology* 24 (2004): 422-23.

습의 방법 중에 하나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강점 학습 형태가 된다. 동시에 학습자는 자신의 강점 학습 형태를 이용하여 학습의 과정을 시작하고 진행한다. 또한 네 가지 학습 양식에 대한 연속되고(continual) 순환적인(cyclic) 경험 학습을 통해 학습을 통한 성장에 이를 수 있다.

콜브(Kolb)의 학습 형태 이론은 학습자로 하여금 의미 있는 학습의 경험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전통적인 교수-학습법에서는 학습자가 수동적이 되거나 혹은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경험학습은 학습자가 네 가지의 다양한 학습의 원리와 방법들을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습을 통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전달 방법에 있어서 교사 중심의 일방적 교수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므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다양한 교류와 역동성이 발견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콜브(Kolb)의 학습 형태 이론은 두뇌의 기능을 교육적으로 활용한 매카시(McCarthy)에게 영향을 미쳐서 더욱 견고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매카시(McCarthy)는 칼 융(Carl Jung)의 성격타입 이론과 콜브(Kolb)의 경험학습 이론에 영향을 받아 학습 형태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그는 소위 '학습의 자연적 주기(natural cycle of learning)'를 강조하였다.[16] 그는 이 연속된 학습의 주기를 통해 학습자가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의 내용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메카시(McCarthy)는 직관적인 능력을 담당하는 우뇌(right brain)와 분석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left brain)의 기능을 연구하여 그의 학습 이론에 도입하였다.[17] 그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주요한 학습 형태와 우뇌든 좌뇌든 선호하는 뇌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학습의 선호를 가진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법(teaching

---

16 B. McCarthy and D. McCarthy, *Teaching Around the 4MAT Cycle* (Thousand Oaks: Corwin Press, 2006), 1-10.

17 McCarthy and McCarthy, *Teaching Around the 4MAT Cycle*, 37-64.

methods)을 사용하여 가르쳐야 학습에서 의미 있는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학습 형태를 가진 학습자에게 학습에의 동기부여를 하고 교육과정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의미 있는 교육적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형태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수 방법론을 순환적(cyclic)이고 연속적(continual)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콜브(Kolb)와 매카시(McCarthy)의 이론을 기독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바로 르피버(LeFever)인데 그녀는 네 가지 학습 형태가 갖는 학습자의 특징을 성경을 가르치는 공과 교육에 접목하였다. 르피버(LeFever)는 매카시(McCarthy)의 네 가지 학습 형태 구분을 차용하여 각각 창조적 학습자(imaginative learner), 분석적 학습자(analytic learner), 상식적 학습자(common sense learner), 역동적 학습자(dynamic learner)로 나누고 모든 학생들은 이 네 가지 학습자의 유형 중에 한 가지에 속한다고 보았다.[18] 창조적 학습자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의미를 찾는 데 강점을 가진 사람으로서 '왜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학습자이다. 분석적 학습자는 공부의 내용 연구에 강점이 있는 사람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상식적 학습자는 실험이나 경험에 강점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어떻게 일반화시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역동적 학습자는 창조적인 적용에 강점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배운 것을 삶의 다양한 상황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학습자이다.[19] 리차즈(Richards) 이러한 네 가지 학습의 특징을 성경을 가르치는 공과 교수에 순서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래서 훅(Hook)－북(Book)－룩(Look)－툭(Took)이라는 공과 교수의 틀을 만들어 실제 주일학교 공과 교수에 실천하도록 하였다.[20]

르피버(LeFever, 2004)는 앞서 제시한 네 가지 학습 형태들이 실제로

---

18 LeFever, *Learning Style*, 19-21.

19 LeFever, *Learning Style*, 23-28.

20 L. O. Richards and G. J. Bredfeldt, *Creative Bible Teaching* (Chicago: Moody Press, 1998), 151-65.

학습의 사이클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사가 이 학습의 주기를 따라 학습자를 가르치게 되면 공과나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매우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의 강점을 학습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르피버(LeFever)의 학습 형태 이론은 일차적으로는 학습자의 독특한 학습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사로 하여금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 형태를 고려한 교수 방법론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모든 학습자를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요약하면, 학습 형태란 학습자 개인이 갖는 독특한 배움의 방식으로서, 학습에 있어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일종의 통합된 학습의 패턴이다.[21] 이 패턴에 따라 학습자는 경험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선호도를 나타낸다. 콜브(Kolb)의 학습 형태 이론은 경험학습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학습자가 네 가지 학습의 양식(learning modes)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동안 학습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연속된 학습의 순환 주기는 학습자가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콜브(Kolb)의 학습 형태 이론은 매카시(McCarthy)에 의해 보다 실용적으로 적용되어 교수-학습법에 구체적으로 활용되었다. 더불어 이 학습 형태 이론은 리차즈(Richards)와 르피버(LeFever)와 같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에 의하여 교회 교육의 방법론으로 차용되었는데 공과 교수법과 관련하여 많은 실제적 유익을 주었다.

3. 기독교 영성의 한 분야인 종교적 동기 (religious motivation)에 대한 이해

기독교의 영성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는 신앙의 전인격적이고 종합적 특

---

21 J. W. Keefe, *Profiling and Utilizing Learning Style* (Reston: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1988), 2.

성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측면에 국한하여 설명하기 매우 힘들다. 즉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인지적 이해(rational)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relational)를 설명하는 정적인 요소, 그리고 이해하고 느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위적 요소(behavioral)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신앙은 다분히 전인격적이며 그러기에 기독교 영성을 어느 하나의 측면으로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 역시 기독교 영성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기에 신앙의 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인 종교적 동기(religious motivation)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적 동기는 종교를 갖게 하는 동인과 그 종교적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하는 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준다. 더불어 종교적 동기에 대한 연구는 신앙의 실천적 측면인 종교적 헌신도(religious commitment)를 측정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연구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트와 킹(Hunt & King)은 종교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종교적 동기에 대한 연구라고 평가하고 있다.[22]

앞서 학습 형태 이론에서 살핀 것과 같이 모든 학습자가 배움에 있어서 모두 다 똑같이 배우는 것은 아니다. 개별 학습자는 자신이 가진 고유한 배움의 강점을 갖고 학습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각 개인이 가진 학습 형태라고 했다. 이와 동일하게, 각 개별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와 그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그 종교가 내포하고 있는 신앙적, 윤리적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가 외부적 요인, 즉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개선을 위한 것이나 혹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개인적인 마음의 안녕과 평안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신앙적 동기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동기란 무엇인가? 종교적 동기란 한 사람이 자신의

---

22 R. A. Hunt and M. King, “The Intrinsic-extrinsic Concept: A Review and Evalu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0 (1971): 339.

종교적 신념을 살아내는 수준이다. 알포트와 로스(Allport and Ross)는 종교를 구분함에 있어서 성숙한 종교와 미성숙한 종교로 나누고 전자를 내적인 종교성(intrinsic religiosity)으로 후자를 외적인 종교성(extrinsic religiosity)으로 명명하였다.[23] 이들에 따르면 내적인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종교 자체를 *살아내는(live)* 사람이며 종교 자체가 삶의 주요한 동기가 된다.[24] 이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들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 믿으며 실천한다. 반면에 외적인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종교를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안정감과 평안함, 그리고 사회적 관계 계선과 자기 정당화를 추구하게 된다. 즉 종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하는(use)* 것이다.[25] 도나휴(Donahue)는 알포트와 로스(Allport & Ross)가 제시한 두 종교성에 대한 구분이 종교 심리학 분야에서 대단히 영향력 있는 구분으로 이해하였다.[26]

종교적 동기에 대한 알포트와 로스(Allport and Ross)의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는 후대 학자들에 의하여 조금 더 세분화되고 견고해졌다. 도나휴(Donahue)는 종교에 대한 내적 동기는 종교적 헌신도를 평가하는 탁월한 도구라고 평가한 반면 외적 동기에 대해서는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는 도구라고 평가하였다.[27] 커크 패트릭과 후드(Kirkpatrick & Hood) 역시 종교의 내적 차원이 종교적 헌신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외적 차원은 종교를 갖는 이기적인 동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았다.[28] 따라서 위에 언급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내적 종교

---

23 G. W. Allport and M. J.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967): 434-35.

24 Allport and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434-35.

25 Allport and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434.

26 M. J. Donahue,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for the Science Study of Religion* 48 (1985): 400.

27 Donahue,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415-16.

28 L. A. Kirkpatrick and R. W. Hood,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The Boon or Bane of Contemporary Psych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1990): 447-48.

동기란 자신이 가진 종교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순수한 동기를 일컬으며 반대로 외적 종교 동기란 실리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소유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커크 패트릭(Kirkpatrick)은 종교적 동기 이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보를 가져다 준 인물이다. 그는 알포트와 로스(Allport and Ross)가 제안한 종교적 동기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이분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외적 동기를 더 세분화하여 개인 외적 동기(extrinsic personal)와 사회 외적 동기(extrinsic social)로 구분하였다. 개인 외적 동기란 개인이 종교를 갖거나 그 종교를 유지하는 이유가 개인적 평안이나 안녕, 그리고 내적인 보호를 위해서 라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사회 외적 동기란 개인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종교로부터 사회적 보상을 받거나 혹은 종교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29] 이러한 외적 동기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구분은 골서치와 맥퍼슨(Gorsuch and McPherson, 1989)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이들은 이 이론을 근거로 수정된 종교 동기 측정 도구를 개발해 냈다(Intrinsic/Extrinsic Revised scale).[30] 이 측정 도구는 오늘날 종교적 동기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알려져 있다.

요약하면, 종교적 동기란 인간 자신이 가진 종교적 신념을 살아내는 수준으로 정의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종교를 갖게 되는 동기와 그 종교를 유지하는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종교적 동기는 일차적으로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로 나뉘며, 내적인 동기는 종교를 갖는 이유가 개인의 만족의 차원이 아닌 종교에 대하여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을 말한다. 이는 성숙하고 보다 헌신된 종교적 동기를 나타내준다. 반대로 외적인 동기는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개인 외적 동기는 종교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

---

29 L. A. Kirkpatrick,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Allport-Ross and Feagin Measures of Intrinsic-extrinsic Religiousness," in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ed.), M. Lynn and D. Moberg (Greenwich, JAI Press, 1990), 13.

30 R. L. Gorsuch and S. E. McPherson, "Intrinsic/extrinsic Measurement: I/E-revised and Single-item Scal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 (1989).

이고 사회 외적 동기는 종교를 통해 인간관계를 개선한다거나 사회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 외적인 동기는 내적인 동기보다 덜 성숙하며 종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한다. 이 종교적 동기는 기독교의 영성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영성의 정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4. 학습 형태와 기독교적 영성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북미에서 학습 형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70년대부터이다. 일반 교육학의 교육 방법론, 혹은 교육 공학 분야에서는 학습 형태가 가진 학습에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습 형태 이론을 이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learner centered education)을 실천하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의 동기부여 향상, 학습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적극적 태도, 높은 학습의 성취도,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개선 등을 실천하고 있다.[31]

기독교 교육에서 학습 형태와 영성 발달에 대한 상관관계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후대에 나타났다. 프란시스(Francis)가 지적한대로 비록 학습 형태 이론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자에게 지금까지의 주요한 관심사는 아니었으나 기독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습 형태를 고려하여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 교육 참여에의 동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통한 영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함축을 하고 있다.[32] 또한 모란(Moran)이 지적한 대로 경험 학습 이론을 바탕으

---

31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C. Jones, C. Reichard and K. Mokhtari, "Are students' learning styles discipline specific?,"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27 (2003): 363-75; L. J. Rayneri, B. L. Gerber and L. P. Wiley,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room Environment and the Learning Style Preferences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Impact on Levels of Performance," *The Gifted Child Quarterly* 50 (2006): 104-17; J. L. Ross, M. T. Drysdale and R. A. Schulz, "Cognitive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Two Postsecondary Computer Application Courses," *Journal of Research on Computing in Education* 33 (2001): 400-12; R. Yount, *Created to Learn* (Nashville: B & H Academic, 1996).

로 한 학습 형태 이론이 학습자 개인의 영성과 영적 성장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33] 따라서 교육의 방법론으로서의 학습 형태를 고려한 학습 방법은 이제 학습자의 영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이 자명하다. 그러기에 학습 형태와 영성 발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경험학습 철학을 배경으로 한 학습 형태 이론과 기독교 영성발달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에 있어서, 올센(Olsen)은 콜브(Kolb)의 학습 형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적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34] 물론 이 연구의 통계적 조사 방법론 부분에서는 콜브의 학습 형태와 영적 헌신도 사이에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구대상들에 대한 평가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된 보고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습 형태와 영적 헌신도 사이에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콜브(Kolb)의 학습 형태를 적용한 커리큘럼을 통하여 가르쳐진 학생들의 영적 헌신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어(Thayer, 1996)는 콜브(Kolb)의 경험학습 이론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네 가지 학습의 양식들(learning modes)을 기반으로 네 가지 영성 형태를 고안해 냈다(existential, quest, vision, new life dimensions).[35] 테이어(Thayer)는 이 네 가지 영성 형태를 학습자의 영적 성장의 잠재적 영역으로 규정하였으며, 학습자가 네 가지 영역에 속한 각각의 영성 발달 훈련을 실천하면 전인적인 영성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개인이 가진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영성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테이어(Thayer)는 이 연구를 통하여 콜브(Kolb)의 경험학습을 기반으로 한

---

32 L. J. Francis, “Learning Styles in Religious Education,” *RE News* 78 (2007): 19.

33 Moran, “Spiritual Formation as Experiential Learning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with Spirituality Type and Spiritual Growth on Christian College,” 2.

34 G. R. Olsen, “A Study of the Effect of Learning Styles on the Process of One-to-one Discipleship” (D. Min. diss., Denver Conservative Baptist Seminary, 1992).

35 J. Thayer, “Assessing Participation in the Spiritual Development Modes: Construction and Testing of the Christian Spiritual Participation Profile” (Ed. D. diss.,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1996).

기독교 영성 참여 검사지(Christian Spiritual Participation Profile, CSPP)를 개발하였다. 비록 이 테이어(Thayer)의 연구가 콜브(Kolb)의 학습 형태와 영성과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험학습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콜브(Kolb)의 학습 형태 이론이 영성의 양식들(spirituality modes)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하인슨(Hynson)은 학습자가 가진 고유한 영성의 타입과 그들의 학습 형태가 교육과정에서 일치될 때, 학습자가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도록 촉진한다고 언급한다.[36] 이영운 역시 학습자 개인이 가진 학습 형태에 따라 그에 일치하는 각각 다른 영성의 타입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다.[37] 이 연구는 학습자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영성을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각 학습자가 갖는 독특한 학습의 형태가 영성 타입의 형성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보고한다.

모란(Moran)은 콜브의 경험 학습 이론이 영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38] 그는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경험 학습 이론이 학습자 개인의 영성과 영적 성장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을 제공해 준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콜브(Kolb)의 경험 학습 이론을 근거로 학습 형태와 영성 형태, 그리고 영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영적 활동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대학교 학생 583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습 형태가 영성 형태나 영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캠퍼스 활동과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는 결국 학습자 개인이 가진 학습 형태의 차이가 그 학습자가 소유한 영성 형태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결국 그것이 학습자의 영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

---

36 D. L. Hynson, “Uniting Knowledge and Vital Peitey: Linking Learning Styles with our Spiritual Type,” *Leader in the Church School Today* 16 (2003): 14-18.

37 Y. W. Le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Types and Learning Styles,” *Torch Trinity Journal* 3 (1999): 87-105.

38 Moran, “Spiritual formation.”

다고 보았다. 결국 학습 형태가 영성 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하였다.

핸슨(Hanson)은 학습 형태가 교회에서 행하는 자원 봉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39] 그는 학습자의 독특한 학습 형태가 교회의 특정한 자원 봉사 활동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워 놓고 미국 내 14개 교회에서 511명을 조사하여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핸슨(Hanson)은 이러한 통계 연구 결과 학습자의 개별 학습 형태가 교회에서 행하는 자원 봉사 활동의 종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 즉 학습자 개인의 학습 형태가 자원 봉사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 변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학습자가 어떤 학습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이 섬기는 교회 봉사활동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물론 이 연구가 경험학습과 콜브(Kolb)의 학습 이론을 직접 비교하여 연관성을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학습 형태에 따라 교회의 봉사 활동의 종류가 달라지고 결국에는 영적 성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르피버(LeFever)는 특별히 콜브(Kolb)와 매카시(McCarthy)가 발전시킨 학습 형태의 이론을 교회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접목하면서 네 가지 학습 형태가 가진 학습의 다양한 특성을 한 공과 안에 그대로 집어넣어 가르친다면 다양한 학습 형태를 가진 학생들을 공과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결국에는 그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40] 특별히 르피버(LeFever)는 학생들의 학습 형태를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교회의 공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콜브(Kolb)나 매카시(McCarthy)가 제시한 경험학습 이론이 학생들의 영성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세메냐(Semenye)는 콜브(Kolb)의 학습 형태 이론과 앞서 제시한 영성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교적 동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최

---

39 A. M. Hanson, “The Impact of Learning Styles on Volunteering for Church Activities” (Ph. D. diss., University of Nebraska, 2006).

40 LeFever, *Learning Style*, 17-22.

초의 사람이다.[41] 세메냐(Semenye)는 케냐의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사고와 학습 형태, 그리고 종교적 동기에 대한 상관관계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세메냐(Semenye)는 내적 종교 동기(intrinsic religious motivation)와 학습 양식 중 하나인 구체적 경험 학습 양식(concrete experience learning mode)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r=.161 p < .05). 이는 신앙심이 깊거나 종교적 헌신도가 높은 사람이 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배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녀는 결론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이 추상적인 방법을 통한 학습 보다 더 학습자를 학습에 몰입하게 하며 이것이 결국 내적 종교 동기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콜브(Kolb)의 학습 형태와 종교 동기와 관련성을 최초로 분석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어떤 학습의 양식(learning mode)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학습자의 영성, 즉 내적 종교 동기를 더 높이는가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그 기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함영주(2010)는 619명의 기독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콜브(Kolb)의 학습 형태와 영성의 한 양상인 종교적 동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42] 앞선 세메냐(Semenye, 1990)의 연구가 케냐의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형태와 도덕적 발달의 측면의 상관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는 학습자 개인이 갖는 학습 형태와 영성과의 직접적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은 콜브(Kolb)의 네 가지 개별 학습 양식들(learning modes)과 영성의 한 분야로서의 내적 종교 동기와 개별적인 통계학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콜브(Kolb)의 네 가지 학습 형태(learning styles)와 내적 종교 동기와도 개별적인 통계학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학습

---

41 L. Semenye,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Reasoning, Learning Styles and Religious Orientation of Selected Students Attending Theological Schools in Kenya” (Ed. D. diss., Biola University, 1990).

42 Y. J. Ham,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s and Religious Motivation among Presbyterian Church Adolescents in South Korea” (Ph. D. diss., Biola University, 2010).

형태든 학습 양식이든 각각의 학습의 강점이 영성 발달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콜브(Kolb)의 학습 형태가 갖는 경험학습의 연속성이라는 특징과 내적 종교 동기가 갖는 전인격적 성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콜브(Kolb)의 경험학습의 가장 중요한 원리중 하나는 네 가지 학습의 양식들(learning modes)을 주기적인(cyclical) 연속성(continuity)을 갖고 경험했을 때, 학습을 통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네 가지 학습의 양식들 중에 어느 하나에만 강점이 있다고 하여 그 강점 양식만을 활용하고 나머지 양식들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학습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을 통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룩하고자 한다면 콜브(Kolb)나 매카시(McCarthy), 그리고 르피버(LeFever)가 이야기 한 대로 네 가지의 학습의 양식을 주기적인 연속성을 갖고 계속해서 경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두 번째 발견물인 학습 형태와 내적 종교 동기간의 비상관성이라는 결과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만약 어느 특정한 하나의 학습 형태가 내적 종교 동기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면 그 특정 학습 형태가 갖는 학습의 강점이 영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학습의 변인이 되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곧 어느 하나의 학습 형태가 가진 학습의 요소가 아닌 네 가지 학습 형태가 가진 학습의 요소를 통합적으로(holistically), 연속적으로(continually), 그리고 주기적(cyclically)으로 학습에 반영했을 때, 의미 있는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콜브(Kolb)와 매카시(McCarthy), 그리고 르피버(LeFever)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학습을 배경으로 한 학습 형태 이론은 네 가지 학습 형태가 갖는 학습의 요소를 모두 가르쳐야 의미 있는 영성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5. 학습 형태를 활용한 교수법의 개발과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 형태와 영성 발달과의 이론적 관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짐 윌호잇(Wilhoit)이 말한 대로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인격을 갖고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학습 형태의 특징이 가진 모든 학습의 방법론을 모두 다 고려하여 한 공과 시간에 가르쳐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와 관련하여 리차즈와 브레드펠트(Richards and Bredfeldt)는 네 가지 학습 형태의 요소가 학습에 반영되는 교육 시스템으로 훅(Hook)－북(Book)－룩(Look)－툭(Took)의 공과 교수법을 제안하였다.[43] 이 학습 형태를 활용한 교수법은 이후 르피버(LeFever)에 의해서 교회 교육에 보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용되었다. 이 공과 교수법의 핵심 원리는 네 가지 학습 형태의 원리가 갖는 학습의 패턴과 방법론이 한 공과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학습자의 의미 있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리차즈와 브레드펠트(Richards and Bredfeldt)에 의하면 훅(Hook)은 학습을 시작하는 첫 과정에서 학습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으로서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왜 이 학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학습자들에게 설득시키는 부분이다. 학습자가 연구해야 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본문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배워야 할 주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시간이다. 르피버(LeFever)에 의하면 이 부분은 창조적 학습자(imaginative learner)의 학습의 강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선지식을 배워야할 본문과 적절하게 연결시켜주는 시간이다.

---

43 Richards and Bredfeldt, *Creative Bible Teaching,* 151-65.

북(Book)은 전통적인 성경공부 방법에서 많이 강조하였던 부분으로서 학습의 내용인 성경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본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본문의 명확한 의미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이 부분의 목적이다. 리차즈(Richards)가 언급한 대로 이 부분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돕는 일이다. 르피버(LeFever)는 이 부분은 분석적 학습자(analytic learner)가 갖는 학습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이라고 본다. 결국 북을 통해 성경의 본문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이 부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룩(Look)은 앞선 북 섹션에서 다루었던 성경의 본래적 의미와 원리가 실제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학습자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한 역사적, 신학적 원리가 지금 학습자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는가를 찾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자가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원리를 찾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섹션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일반화된 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며 나아가 그 찾아낸 원리를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다. 르피버(LeFever)는 이 부분이 상식적 학습자(common sense learner)가 갖는 학습의 강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본다.

리차즈와 브레드펠트(Richards and LeFever, 1998)에 의하면 툭(Took)은 성경 본문에서 찾아낸 일반화된 원리를 실제 학습자가 처한 다양한 환경에 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다. 룩이 일반화된 실천 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라면 툭은 학습자의 개별적 상황에서 성경을 통해 찾아낸 원리를 응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다. 이 교육 활동은 주로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삶의 처소인 가정, 학교, 직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진다. 이 섹션은 학습자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특별한 행동을 취하도록 권면하며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르피버(LeFever)는 이 부분이 역동적 학습자(dynamic learner)가 갖는 학습의 일반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학습을 통한 영적 성장이나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학습 형태가 갖는 학습의 특징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학습 형태 이론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콜브(Kolb)와 매카시(McCarthy)에 의하면, 학습자가 가진 자신만의 특정한 학습의 강점 및 형태가 있지만 네 가지 학습 양식과 학습 형태가 갖는 학습의 특징을 모두 연속적으로 경험해야 의미 있는 학습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자신이 가진 학습의 강점은 훅(Hook)－북(Book)－룩(Look)－툭(Took)의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학습에의 몰입이나 동기부여에 있어서 개인이 가진 독특한 강점 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왜 학습자 개개인이 가진 학습 형태를 알아야 하며 그것을 실제 교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이러한 공과 교수법을 교회 교육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전통적인 교사 위주의 교육 체계로부터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체계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교육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인격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44] 또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참여 활동 학습법'을 실천할 때, 학습 형태를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이 교회 교육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고 본다.[45]

6. 나가는 말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독교 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인 의미 있는 교육을 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그 목표를 위해 다양한 교육의

---

44 김희자, 『창의적인 기독교 교육 방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4), 44-48.

45 M. Silberman, *Active Learning* (Needham Heights: Allyn & Bacon, 1996), 1-8.

이론과 방법론들이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육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교사, 학생, 교재, 환경, 전달 방법－중에 교사와 교재가 중심이 되어 교육이 실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의 특성은 결국 주입식 교육을 낳았고 학생들의 개인적 학습의 강점을 살리는 교육이나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는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가진 학습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에의 동기부여도를 높이고 학습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적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학습의 전달 방법(delivery method)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학습 형태를 통한 기독교 교육 방법(훅－북－룩－툭)이다.

함영주(2010)는 학습자의 전인적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가진 학습의 네 가지 특성을 학습에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반영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46]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교회학교 학습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공과 교수 교안(lesson plan)을 만들 때에 이 학습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 방법론들을 연구하여 실제 학습에 반영해야 한다.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Jesus, the master teacher)도 학습자의 학습의 강점과 발달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론들을 사용하셨다.[47] 따라서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 인정하고 그 교육 방법론을 배우려는 모든 기독교 교육자들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의 강점을 모두 활용하여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격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46 Ham, 215.

47 L. V. Tolbert, *Teaching Like Jesus* (Grand Rapids: Zondervan, 2000), 27-40.

참고문헌

Allport, Gordon W. and J. Michael.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967): 432-43.

Batson, C. Daniel and Patricia A. Schoenrade. “Measuring Religious as Quest: Validity Concern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0/4 (1991): 416-29.

Batson, C. Daniel. “Religion and Prosocial: Agent or Double Ag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5/1 (1976): 29-45.

Cassidy, Simon. “Learning Styles: An Overview of Theories, Models, and Measures.” *Educational Psychology* 24 (2004): 419-44.

Desmedt, Ella and Martin, Valcke. “Mapping the Learning Styles “Jungle”: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Based on Citation 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24/2 (2004): 445-64.

Donahue, Michael J.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for the Science Study of Religion* 48/2 (1985): 400-19.

Francis, Leslie J. “Learning Styles in Religious Education.” *RE News* 78 (2007): 19-26.

Gorsuch, Richard L. and Susan E. McPherson. “Intrinsic/extrinsic Measurement: I/E-revised and Single-item Scal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8 (1989): 348-54.

Ham, Young Ju.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s and Religious Motivation among Presbyterian Church Adolescents in South Korea.” Ph. D. diss., Biola University, 2010.

Hanson, Amy M. “The Impact of Learning Styles on Volunteering for Church

Activities." Ph. D. diss., University of Nebraska, 2006.

Harper, Norman E. *Making Disciples.* Memphis: Christian Studies Center, 1981.

Hunt, Richard A. and Morton, King. "The Intrinsic-extrinsic Concept: A Review and Evalu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0/4 (1971): 339-56.

Hynson, Diana L., "Uniting Knowledge and Vital Peitey: Linking Learning Styles with our Spiritual Type." *Leader in the Church School Today* 16/4 (2003): 14-18.

Jones, Cheryl, Carla, Reichard, and Mokhtari Kouider. "Are Students' Learning Styles Discipline Specific?"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27 (2003): 363-75.

Kayes, Christopher. "Experiential Learning and its Critics: Preserving the Role of Experience in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1/2 (2002): 137-49.

Keefe, James W. *Profiling Utilizing Learning Style.* Reston: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1988.

Kirkpatrick, Lee A.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Allport-Ross and Feagin Measures of Intrinsic-extrinsic Religiousness." In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Eds.). Monty L. Lynn and David O. Moberg. Greenwich: JAI Press, 1990, 1-31.

Kirkpatrick, Lee A. and Ralph W. Hood. "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The Boon or Bane of Contemporary Psych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1990): 442-62.

Kolb, David A.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1984.

Kolb, David and Roger E. Fry. "Toward an Applied Theory of Experiential Learning." In *Theories of Group Process.* (Ed.). Cary Cooper. London: John Wiley, 1975, 33-58.

Lee, Young Woon.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Type and Learning Styles.” *Torch Trinity Journal* 3 (1999): 87-105.

LeFever, Marline D. *Learning Styles.* Colorado Springs: NexGen, 2004.

McCarthy, Bernice and Dennis, McCarthy. *Teaching Around the 4MAT Cycle.* Thousand Oaks: Corwin Press, 2006.

Moran, Ramon. “Spiritual Formation as Experiential Learning: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Style with Spirituality Type and Spiritual Growth on Christian College.” Ph. D. diss., Regent University, 2005.

Olsen, Gilbert R. “A Study of the Effect of Learning Styles on the Process of One-to-one Discipleship.” D. Min. diss., Denver Conservative Baptist Seminary, 1992.

Rayneri, Letty J., Brian L. Gerber, and Larry P. Wiley.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room Environment and the Learning Style Preferences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Impact on Levels of Performance.” *The Gifted Child Quarterly* 50/2 (2006): 104-18.

Richard, Lawrence O. and Gary J. Bredfeldt. *Creative Bible Teaching*. Chicago: Moody Press, 1998.

Ross, Jonathan L., Maureen T. Drysdale, and Robert A. Schultz. “Cognitive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Two Postsecondary Vomputer Application Courses.” J*ournal of Research on Computing in Education* 33/4 (2001): 400-12.

Semenye, Lois.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Reasoning, Learning Styles and Religious Orientation of Selected Students Attending Theological Schools in Kenya.” Ed. D. diss., Biola University, 1990.

Silberman, Mel. *Active Learning*. Needham Height: Allyn & Bacon, 1996.

Taylor, Nick. “Spiritual Formation: Nurturing Spiritual Vitality.” In *Introducing Christian Education.* (Ed.). Michael Anthony.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01, 91-98

Thayer, Jane. “Assessing Participation in the Spiritual Development Modes: Construction and Testing of the Christian Spiritual Participation Profile.” Ed. D. diss.,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1996.

Tolbert, La Verne. *Teaching like Jesus.* Grand Rapids: Zondervan, 2000.

Wilhoit, James. *Christian Education and the Search for Meaning*. 신서균 역. 『현대 기독교 교육』.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1.

Yaganeh, Bauback. “Mindful Experiential Learning.” Ph. D. diss.,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2006.

Yount, Rick. *Created to Learn.* Nashville: B&H Academic, 1996.

김희자. 『창의적인 기독교 교육 방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 Delivery Method Reflecting Learning Style Theory in Christian Education

Ham, Young 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s and religious motivation as an aspect of Christian spirituality. Each learner has a unique style of learning which affects the formation of his or her spiritual maturity.

In the main section of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Kolb's learning styles and intrinsic/ extrinsic religious motivation were explor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experimental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s and religious motivation.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a learner should be taught through creative teaching methods that cater to the individual's learning style in order to further promote their spirituality.

From this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church educators should teach their students according to each student's learning styles. The HBLT (Hook-Book-Look-Took) is a practical teaching method suggested by many Christian educators such as Richards and Bredfeldt (1998) and LeFever (2004) and is actively used in the Christian education field.

In the final section, it is suggested that utilization of the HBLT method by Christian educators may enhance the learner's spiritual growth.

Key-Words : Learning Style, Learning Mode, Spirituality, Religious Motivation